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2023. 4. 3.(월) 06:00 < 4.3.(월) 석간 > 배포 2023. 3. 31.(금)

「미 보잉사(社) 항공우주산업 포럼 2023」 개막

- 70개 국내 기업 참여, 글로벌 공급망 진입기회 강화
- 국내 소부장기업과 기술협력, 투자확대도 모색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4.3(월), 부산 파크하야트 호텔에서 「보잉 항공우주산업 포럼 2023」 행사가 8년 만에 개막되었으며, 우-러전쟁, 코로나 등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 환경에서 보잉과 국내 기업들 간 공급망 협력을 확대하고 국내 스타트업의 투자유치, 연구개발(R&D) 협력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 행사(포럼+1:1상담회+역량강화교육)는 미국 보잉사社(이하 보잉), KOTRA, 경남 사천시, 경남테크노파크 공동 주관으로 3일부터 나흘간 부산 파크하야트 호텔에서 8년 만에 국내에서 개최된다.

우리 기업도 70개 기업이 참여하였으며, 신규 공급선 발굴 및 기술 협력 기대로 보잉 미국 본사에서 약 30명이 이번 행사를 위해 대거 방한한다.

보잉은 세계 최대 항공우주기업중 하나로 1988년 보잉코리아를 설립한 이래 이미 다수의 국내기업과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지난 2019년 서울에 보잉한국기술연구센터(BKETC)를 설립하여 한국과의 기술개발 협력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첫째 날(4월3일) 포럼을 통해 보잉은 항공우주산업 시장 전망, 글로벌 공급망 전략, 항공우주분야 미래 혁신기술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에릭 존(Eric John) 보잉코리아 사장은 “대한민국과 보잉은 지난 70년 이상의 시간 동안 불가분한 관계를 맺어왔다”며, “이번 포럼을 통해 대한민국 항공우주 산업에 대한 기여를 확대하고, 파트너십을 강화하며 나아가 더 많은 협업의 기회를 발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행사 둘째 날(4월4일)에는 보잉과 국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및 항공·우주·방산기업과의 1:1 수출상담회가 예정되어 있다. 국내 항공우주분야 소부장기업 70여 개사가 보잉사 소싱 매니저와 심도 높은 상담을 진행하고, 항공 기체 구조물분야 외에도 이차전지 등 친환경 항공 부품과 경량 인테리어 등의 기업도 참여한다.

또한 국내 혁신 스타트업의 투자유치와 연구개발(R&D) 협력 기회 발굴을 위한 오픈 이노베이션도 진행된다. HorizonX(보잉사가 설립한 벤처캐피털)와 보잉한국기술연구센터(BKETC)가 첫째 날 포럼에서 관심 기술분야와 기술개발 협력 방안에 대해 소개하고, 둘째 날에는 ▲모빌리티 ▲차세대에너지 ▲디지털트윈 ▲네트워크·보안 등 분야에서 발굴된 우리 스타트업 20여개 사와 투자·연구개발(R&D_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주요 프로그램 중 하나인 입찰교육은 행사 둘째 날부터 사흘간 진행될 예정이다. 보잉 담당자가 직접 우리 기업들을 대상으로 보잉 프로젝트 참여 시 입찰제안서를 작성하는 노하우를 구체적인 사례 분석과 모의 작성 연습 등을 통해 진행할 예정이다.

박동일 산업부 제조산업정책국장은 포럼 개막식 축사를 통해, “기업과 시장 중심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동제도를 개선하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어 외국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라고 소개하고, “글로벌 항공기업인 보잉이 한국에서 공급망 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한국 기업과의 협력 확대 및 투자를 통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한국 내(內) 새로운 투자나 국내 기업과 사업협력을 하는데 필요한 규제개선이나 연구개발(R&D) 등을 건의하면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담당 부서	제조산업정책국 우주항공팀	책임자	팀 장	김봉석 (044-203-4305)
		담당자	사무관	임형남 (044-203-4306)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